

한국의 무속과 민간불교의 혼합현상

김 성 은*

目 次

- I. 서 론
- II. 역사적 접근
- III. 혼합현상의 원인 : 종교의 토대
- IV. 해석학적 접근
- V. 결 론

I. 서 론

불교가 종교로서 존재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죽음이나 실존주의적 물음, 질병, 복 등의 문제에 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나 민간불교에서는 엘리트 불교나 귀족 불교와 달리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교는 한반도에 유입된 후 토속적인 신앙을 수용하고 토속종교와 대화를 해왔다. 그러면서 불교는 토속 신앙과 일정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한국 토착신앙인 무속은 불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마찬가지로 불교도 무속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결국 민간불교와 무속은 어떤 경우에는 구분이 어려울 만큼 혼합(syncretism)현상을 이루고 있다.¹⁾

*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1) 무당들은 스스로를 보살이라고 칭하고 자신의 집을 암(庵) 혹은 사(寺)라고 부른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만(卍)'자가 적힌 깃발로 표시한다. 게다가 집 안

한국의 혼합 현상의 상황에서 대다수의 불교인들의 믿음과 실천, 즉 그들의 신행을 배제한 채 한국 불교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불교인들의 대부분은 가정주부들인데, 이들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참선을 하거나 경전을 공부하거나 이를 읊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그들 대부분은 민간신앙과 혼합된 대중적 형태의 불교 생활을 영위한다. 이 신앙은 일상생활 속에서 현실적인 욕망을 추구할 뿐이다.

불교가 한국의 왕실과 대중에게 수용되고 정착되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는 기복이나 치병, 내세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만큼 이런 요소들은 한국 불교의 독특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현상들을 고찰하기 위해 불교와 무속의 혼합현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불교와 무속의 긴 만남의 역사와 양자 간의 강도 높은 혼합에도 불구하고 두 종교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무속과 불교의 혼합현상이라는 문제는 아직까지 충분히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두 종교 간에 그토록 밀접한 혼합 현상이 전개된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반도에 출현한 모든 외래 종교들 곧 불교와 유교, 기독교가 한국의 고유의 종교인 무속과 많은 접촉을 가져왔지만 그 종교들 중에 불교만큼 무속과 혼합된 종교는 없다. 오히려 유교와 기독교는 불교와 달리 무속과는 대립의 관계로 지속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불교와 무속의 혼합 문제를 다루면서 위에 제시된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한국 상황에서 불교와 무속의 혼합의 연구와 그 외에 한국종교의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에 기여하

에 부처를 모시기도 하며 불당에서나 볼 수 있는 보살이나 대왕의 그림들도 배치해 둔다. 더군다나 석가모니와 삼불제석은 무속에서 천신과 함께 최상위의 신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 곳 안에 한 거리인 제석거리는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 제석 거리에서 무당은 고깔을 쓰고 백장삼을 입은 위에 빨간 가사를 두르고 제금을 치면서 무가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제석염불을 외우며 불교의 승려를 표방한다. 무당은 망인을 저승으로 보내는 천도굿을 행하면서 염불을 외움으로써 그 염불의 공덕으로 망인을 저승으로 천도시킨다. 김태곤, 『巫俗과 靈의 세계』, 한울, 1993, 191쪽.

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혼합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1) 역사적 고찰, 2) 종교의 토대 고찰 그리고 3) 해석적 고찰의 세 단계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²⁾

II. 역사적 접근

불교와 무속 간의 혼합현상은 비단 현대의 일이 아니라 불교가 한반도에 유입될 때부터 시작된 일이다. 불교가 신라로 전래되면서 당연히 기존의 토착신앙인 무속과의 접촉이 발생했다. 일연(一然)의 작품인 『삼국유사』에는 아도(阿道)가 신라에 최초로 불교를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승려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불교의 힘을 보임으로써 불교를 전파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왕실에서 치병을 행하기도 함으로써 왕실의 호의를 얻기도 했다.

예컨대 눌지왕(訥祗王, 417-458)때 공주가 병이 들자 인도의 승려인 목호자(Sramana)가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여 공주의 병을 곧 낳게 하였다. 미추왕(昧鄒王, 264) 3년에는 “성국(成國)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무의(巫醫)의 효험이 없으므로 사람을 사방으로 보내어 의사를 구하였”고 이에 아도(我道)가 그 병을 치료함으로 자신의 소원대로 사찰을 창건할 수 있었다.³⁾

불교가 신라에 전래되어 정착되는 과정에서 승려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가장 효과적인 전교의 수단이었다. 승려들이 가진 능력이 왕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승려들의 기술이 무당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무당들도 치병을 하거나 축귀를 행하기도 했지만 승려들은 그들보다 더 효과적이며 강한 초

2) 최종성은 불교와 무속의 혼합현상을 다루는 삼 단계에 논의를 제시하였다. 곧 1) 분석적인 혼합현상의 유형론, 2) 그 유형론의 역사화, 그리고 3) 혼합현상의 주체와 상징의 전유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 제시를 따르지 않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습합의 문제를 다룬다. Choi Jong Seong, Syncretism of Buddhism in Korea: Book Review,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8 No. 1 March 2005.

3) 一然, 『三國遺事』, 李丙燾 譯, 한국의미속-종교 사상, 삼성출판사, 1997, 148-149쪽.

자연적인 능력을 구사했음을 여러 문헌기록이 강조하고 있다. 외래인인 불교 승려들이 왕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당이나 다른 사제들과 충돌을 일으켰을 것이라 짐작된다.⁴⁾

미추왕 사후, 사람들이 아도법사로 하여금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한 것이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삼국유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승려들을 위협한 자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곧 사제, 이른바 무당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승려들이 무당들보다 떠 뺀 역할 수행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교는 법흥왕(514-540)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100년 동안 신라에서 금지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527년 이차돈(異次頓)의 순교를 통해서 다시 신라에 정착하게 되었다.

불교의 전래가 시작되면서 승려들은 무당들과 사제의 역할을 두고 경쟁을 벌이며 우위에 서게 되는데 이는 불교 승려들이 수행한 역할이 무당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대로 무당들은 승려들을 통해 새로운 비법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불교의 전래 초기부터 양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법흥왕의 불교 공인 후 불교는 신라에서 꽃을 피우면서 신라인의 정신적·물질적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불교가 무속이나 그 밖의 다른 사상과의 대화를 거치면서 혼합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화랑(花郎) 제도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화랑은 불교, 유교, 도교와 무속의 혼합현상을 통해 나온 결과이다.

진흥왕(540-576)은 미타사상과 전륜성왕(轉輪聖王)사상에 의거하여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화랑을 일으켰다. 진흥왕은 새로운 역군이 필요해서 청년 지도자들을 양성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로 설정한 것이 화랑도였다. 이것은 불교문화는 아니었다.

4) 『삼국유사』 제6장에는 선덕왕(632-647) 때에 밀본법사(密本法師)가 악귀를 병든 사람에게서 굴복하게해서 쫓아내는 법사로 알려졌다. 혜통(惠通)은 진덕왕(眞德王) 때 중국의 공주에게 든 독룡(毒龍)을 내쫓았다. 문무왕(文武王) 때에는 명낭(明郎)이 비법을 발휘해 당나라 군사의 침략을 막았다. 一然. 『삼국유사』, 神呪 제6장, 李丙燾 譯, 한국의 민속·종교 사상, 삼성출판사, 1997, 247-252쪽.

그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무속의 기반 위에서 성장한 토착적인 불교문화였다. 즉 무속이 주체가 되어 유·불·신을 흡수하면서 새로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고유의 전통문화가 능히 삼교를 포섭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⁵⁾

불교가 신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후에 혼합현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진흥왕 대는 혼합현상의 초기 단계였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레이슨(Grayson)에 의하면 상위 혼합(high syncretism) 현상이 화랑에서 드러나고 있다⁶⁾. 이는 불교가 한국 문화를 소화하는 것이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와 무속은 아도(阿道) 범사가 한반도에 왔을 때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혼합현상을 보여왔는데 그 역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1700년이나 된다. 그 긴 시간을 통해 각 종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다.

고려에 이르러 무-불 혼합현상은 더욱 활발히 진행된다. 예를 들자면 팔관회(八關會)에서는 무-불 혼합현상이 파악된다. 진흥왕 때 시작된 팔관회는 고려말까지 약 800년 간 유지된 제전이였다. 팔관회는 고구려의 제천(祭天) 풍습을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화랑도(花郎道) 또한 계승한 것이었다. 고려사에서 팔관회를 열었다는 기사가 109회나 나오는 것은 고려시대에 불교의 성행이 어느 정도이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각 시대의 팔관회에 대한 기록은 94회의 이른다.⁷⁾ 팔관회는 왕실이나 사찰에서 행해졌던 불교의례인

5) 『三國史記』 1권 4, 진흥왕 37년조.

6) 상위 혼합현상(high syncretism)은 토착 종교인 무속이 외래종교와 혼합되어서 새로운 종교의 중심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하위 혼합현상(low syncretism)은 새로운 종교의 주체가 외래종교가 되는 경우이다. James Huntley Grayson, "The Accommodation of Korean Folk Religion to the Religious Forms of Buddhism: An Example of Reverse Syncretism", *Asian Folklore Studies*, Volume 51, 1992.

7) 太祖元年(918) 1회; 顯宗元年(1010) 1회; 靖宗(1034-1046) 3회; 文宗(1047-1082) 11회; 宣宗(1084-1094) 3회; 肅宗(1096-1105) 10회; 睿宗(1106-1122) 7회; 仁宗(1123-1146) 2회; 毅宗(1147-1170) 2회; 明宗

데 외관상으로는 불교의례였지만 내용은 고대의 무속제례이었던 민간의 제전이였다. 그러므로 팔관회의 의미는 불교적 수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선(國仙)의 가무백희(歌舞百戲)에 의한 기복축제(祈福祝祭)에 있었다.

팔관회의 내용은 무속적인 기복제, 수호제(守護祭), 위령제(慰靈祭)의 역할을 해 왔다. 이 제의의 용도는 다양하였다. 첫 번째로, 태조는 팔관회를 베풀어 천령(天靈)과 산천(山川)을 기리고 용신(龍神)을 섬기는 등 감사(感謝)와 기복(祈福)을 행하는 의례로 삼았다.⁸⁾ 두 번째로는 수호의 용도이다. 신라시대에 선덕왕은 자장율사(慈藏律師)의 제언을 듣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황룡사에 팔층 탑을 세우고 팔관회를 열었다. 따라서 팔관회는 옛 제천의례와 함께 국가 수호제의 기능을 동반하였다.⁹⁾ 세 번째로는 위령제(慰靈祭)의 역할이었다. 팔관회는 천지신명(天地神明)에 대한 추수감사제(秋收感謝祭)로서 농경의례의 일종이며 중심에 곡식신앙이 있다. 그런데 곡식신앙은 조상들의 영혼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애초에 신라에서 팔관회를 베풀었을 때에는 전쟁에서 죽은 군사(戰死士卒)를 위한 위령제였다.¹⁰⁾

무속과 불교의 화합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활발해졌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으면서 무속과 교섭을 통해 혼합현상이 이루어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불교의 형식을 통하여 무속적인 목적을 추구하였다. 곧 기복과 호국 그리고 영혼을 위무하기 위한 목적 등이 그것이다. 외관상으로는 불교적인 의례였지만 그 행위의 중심, 이른바 주제 구조는 무속적인 패러다임을 반영하였다. 달리 말

(1171-1197) 12회; 神宗(1198-1204) 5회; 熙宗(1205-1211) 4회; 康宗(1212-1213) 1회; 高宗(1214-1259) 14회; 元宗(1260-1274) 2회; 忠烈王(1275-1308) 5회; 忠穆王(1345-1348) 2회; 恭愍王(1352-1374) 5회; 禔王(1375-1388) 2회; 恭讓王(1389-1392) 2회. 유동식은 『고려사』가 이조시대의 유학자 정린지(鄭麟趾)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불교적 행사들이 많은 제약으로 다루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유동식,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132쪽.

8) 위의 책, 145쪽.

9) 위의 책, 135-136쪽.

10) 위의 책, 136-137쪽.

하자면 의례의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변하지는 않으면서도 새로운 방식을 채용한 것이다.

Ⅲ. 혼합현상의 원인: 종교의 토대

무속과 불교의 혼합현상의 원인의 논리로 불교와 무속의 저변의 유사성 때문에 거침없이 융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김태곤의 논의는 무속과 불교의 토대의 유사성 곧 “미분성에 기반을 둔 순환적 지속 사고체계가 원본(原本, arche-pattern) 사고”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마찰 없이 융화될 수 있었다고 한다. 미분성이 일차적 원인이고 이차적으로는 불교가 한국의 종교적 토양 위에 포교되는 과정으로 자연히 전래의 전통적인 무속의 요소가 불교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결과 불교의 요소가 무속 안에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¹¹⁾

위 논의를 쟁점 삼아 혼합현상의 원인을 논의하기 위하여 시왕(十王)신앙의 저승관 예로 뽑았다. 역사적으로 시왕신앙은 원래 불교 신앙이 아니고 도교에서 수용된 신앙으로 추측되는데 당대에 중국으로부터 고려로 전파되었으며 10세기 말이나 11세기 경에는 이미 시왕을 본존으로 모시는 사찰이 건립될 정도로 발전한다.¹²⁾ 시왕신앙은 고려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간행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시왕경을 통해 볼 때 조선말에도 지속되었고 현재까지 지속되어 가는 신앙이다.¹³⁾ 다시 말하자면 이 신앙은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결과이며 한반도로 전파되면서 불교의 극락과 지옥의 사상이 한국의 고유한 사후 세계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불설예수시왕생칠경』에 의하면 사람은 죽은 후 명계에 있는 10명의 왕¹⁴⁾에게 생전의 행위에 대해 차례로 심판을 받는데, 살아

11) 김태곤, 『巫俗과 靈의 세계』, 한울, 1993. 199-201쪽.

12) 김정희, 『조선시대지장왕 연구』, 서울: 일지사, 2004, 141쪽.

13) 한보광, 「한국불교에 있어서 지장의례의 역할」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장신앙의 재조명』, 성울: 월류산 영명사, 1991.

14) 명부세계에서 재판은 다음의 차례의 왕으로부터 받는다. 제1주 정광왕(신은부

있는 유족이 시왕에게 재를 올려 죽은 이의 명복을 빌면 죽은 자가 명부 세계에서 해매지 않고 속히 육도(六道)에¹⁵⁾ 전생한다고 한다.¹⁶⁾ 이에 따라 망자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 전생하도록 추선불사(追善佛事)는 시왕재라고 한다.¹⁷⁾

명복을 비는 명부(冥府)신앙인 시왕(十王)신앙을 한국 무속에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불교가 무속에 수용되었음을 말해준다. 무속의 천도재(遷度齋)에서 십대왕들은 망자의 운명을 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무속의 사후 세계는 불교의 시왕경(十王經)에 나오는 십대왕전과 은중경(恩重經)에 나오는 지옥의 사상이 무속으로 그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¹⁸⁾ 지옥의 종류는 불교 경전마다 차이가 있지만 불교의 지옥은 팔대 지옥을 꼽을 수 있다.¹⁹⁾ 이러한 지옥의 표본이 된 것이 시왕도(十王圖)이지만 민간에서는 이와 같이 단순하고 더욱 사실적인 지옥의 풍경과 지옥담이 유포되었을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 신앙되는 내세의 형태는 극락과 지옥이 구분되는 불교적 형태의 것과는 다르다. 민간신앙에서는 지옥과 극락을 구분하는 불교적인 관념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저승과 이승의 차이도

동명왕), 제2주 초강왕(역가여래), 제3주 공제왕(문수보살), 제4주 오관왕(보현보살), 제5주 염라왕(지장보살), 제6주 변성왕(미륵보살), 제7주 태산부군(약사여래). 100일에는 평등왕(관음보살), 일년에는 도시왕(세지보살), 3년에는 오도전륜왕(아미타여래). 이 중에 제5 염라대왕은 지옥의 주인인 염마왕을 뜻하고 있다. (이기선, 『지옥도』, 대원사, 1993, 61쪽.)

15) 육도는 일체 중생이 선악의 업인(業因)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르는 여섯 가지의 미계(迷界), 곧, 지옥·아귀·축생·수라·인간·천상.

16) 시왕이란 각각의 심판을 맡고 있는 심판관인 썸인데 초칠일은 정광왕(신은부동명왕), 이칠일은 초강왕(역가여래), 삼칠일은 공제왕(문수보살), 사칠일은 오관왕(보현보살), 오칠일은 염라왕(지장보살), 육칠일은 변성왕(미륵보살), 칠칠일은 태산부군(약사여래), 백일은 평등왕(관음보살), 일년은 도시왕(세지보살), 삼년은 오도전륜왕(아미타여래)으로 이루어져있다. (이기선, 61쪽.)

17) 김정희, 20쪽.

18) 김태곤, 195쪽.

19) 팔대 지옥은 다음과 같다. 등활(等活, samjiva), 흑승(黑繩, Kālasūtra), 중합(衆合, Samghāta), 호규(號叫, Raurava), 대규(大叫, Mahāraurava), 염열(炎熱, Tapana), 대열(大熱, Pratāpana), 무간(無間, Avici).

이기선, 41쪽.

불교와 같이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불교의 사후세계관과 달리 무속에서 저승의 영혼들은 의례를 통하여 이승의 자손들 앞에 종종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무속 공간 안에서 볼 때 저승과 이승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망자의 자손들은 무당을 통해 영혼을 저승에 보내거나 또는 다시 불러들여 진혼할 수 있다. 게다가 무속에는 시왕들의 재판 같은 것이 없다. 무속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을 달래거나 그의 한을 풀어 줌으로써 저승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다.²⁰⁾

이 같은 무속의 현실적 경향은 민간불교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불교의 사후사상에서 저승에 중심을 두는 것과 달리 민간불교에서는 강조점이 변화되어 내세보다 현세에 초점을 두고 현세의 논리로 저승을 바라보려고 한다. 예컨대 불교사찰의 지장전에서 기도하는 신도들은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현세에서의 죄를 탕감해 주도록 기원하는 현세 이익적인 면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후의 세계라고 하여 막연히 속세와 분리하여 생각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세속적인 논리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발한 사고전환을 통해 지장전을 세속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 사후세계를 다루는 지장전은 이 세계에서든 현실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현실의 재해석을 통해 무속적으로 현실의 욕망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²¹⁾

불교와 무속 간의 혼합현상은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민간층에서 수용한 불교의 시왕신앙은 어느 정도 단순화되어 민간의 사상 틀에 맞게 재해석된 징후가 보인다. 곧 상위 혼합현상(high syncretism)이라고 할 수 있다.²²⁾ 말하자면 주체는 토착신앙인 무속의 사유체계이고 외면의 내용은 불교의 시왕신앙인 것이다. 이는 불교와 무속의 사후사상의 유사성에 기인하기보다는 무속 저변의 포용성 혹은 유연성이 발휘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20) 김태근, 57-60쪽.

21) 편무영, 296쪽.

22) James Huntley Grayson, "The Accommodation of Korean Folk Religion to the Religious Forms of Buddhism: An Example of Reverse Syncretism", *Asian Folklore Studies*, Volume 51, 1992.

또 다른 예로 제주도의 시왕맞이라는 민간 시왕의례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 의례에서는 무당의 힘이 절대적이며 그의 중개자 역할을 통해 망인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된다. 망인의 승천은 지역 토속신의 허용 없이는 불가능하다. 불교의 논리보다는 토속적인 논리가 중요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은 시왕들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이승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 무당은 시왕의 허거나 승낙 없이 망인을 이승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다.²³⁾

제주도 민간신앙의 시왕맞이굿에는 저승재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당을 통해서 자손들이 기원하는 바대로 망자가 저승의 좋은 곳으로 천도된다는 관념이 있다. 불교의 시왕신앙은 무당이 나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의례의 배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당은 필요에 따라 재해석된 줄거리에 맞게 연극의 주인공과 배우들을 배정하는 셈이다. 이렇게 시왕의 세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옥과 극락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교의 시왕신앙이 전해 준 극락과 지옥의 타계관은 사실상 무속에서 변형되었다. 이는 무속화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극락과 지옥이 점차 무속 본래의 이승과 저승의 틀 안으로 녹아들어 가 있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불교가 무속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무속이 불교의 요소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쓰임과 사고체계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불교에서는 극락이나 지옥이나 하는 구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택일의 타계관이 무속 세계에서는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고유의 이승관과 저승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무속은 현세를 사는 사람들의 안심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불교와 구별되는 측면을 지닌다. 무속의 천도 의례는 저승보다 이승에서의 삶을 위한 보장 장치이다.

결국 시왕신앙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와 무속의 혼합은 양자의 종교적 토대가 유사해서라기보다는 두 종교가 근본적으로 용이하

23) 편무영, 299-230쪽.

게 혼합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사후세계관의 형태가 무속의 토대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속의 해석이 더해져서 무속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 순조롭게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무속이 불교적인 저승관을 본래의 내용과 다른 변형된 방식으로 수용한 것은 무속이 그것을 자신의 사상체계에 맞게 재해석한 결과이다. 곧 '지옥-극락'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불교적 내세관을 '저승'으로 일원시키면서 내세의 영혼에 대한 관심사를 이승적인 관심 즉 현세의 사람들의 안심과 행복으로 전환시켰다.

IV. 해석학적 접근

어떤 이유로 타종교의 요소가 수용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수용주체의 의도이다. 그런 수용은 의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종교의 상대적인 위상(prestige)이라는 요소도 중요하다. 종교의 위상은 공식-비공식의 구분과 관련이 있으며 종교의 세력 여하와도 관련이 있다. 즉, 세력이 약한 종교는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력이 강한 종교를 모방하려는 면이 있다. 그 결과 혼합이 발생한다.

위의 문제들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혼합현상의 이유를 다루고자 한다. 해석학적인 접근을 위해 무속이 불교 수용의 이유를 논의하고자 한다. 무속이 불교의 요소들을 수용하는 이유는 다양했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한다.

1) 혼합현상의 한 이유는 무당이 불교의 신들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힘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무당이 발휘하는 영적인 세계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에서다. 무당은 많은 신들을 섬길수록 더욱 강한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

무속은 수없이 많은 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신을 수용하였다. 무속의 판테온은 세 가지 범위로 나뉜다. 판테온의 핵에는 주요 신들이 포함되어 있고 제 2범위의 신들은 조상신이다. 이

신들은 가족 관계와 관계하는 신이며 개성이 매우 독특하다. 제 2범위의 신들은 능력에 한계가 있다. 제 3범위에는 잡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형태나 이름이 없이 판테온의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 범위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고 신들과 영혼은 그 범주를 왕래할 수 있다.²⁴⁾

이 판테온에는 많은 불교 신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신은 관세음보살이다. 무속의 신단에는 관세음보살의 상이 모셔져 있다. 부처나 보살 중에서 특히 관세음보살이 보호신인 경우가 많다. 관세음보살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보살은 병을 고치는 상징인 약병을 들고 있는 약사여래이다. 그 외에 불교의 신중에서 무속에 많이 수용된 신은 제석과 불사(佛師)이다. 제석은 불교의 제석천(帝釋天)이 무속화된 신이다. 원래 불교에서는 법과 법왕을 보호하는 신이었는데 무속에서는 장수, 곡식, 옷, 복, 재앙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가장 강한 힘을 지닌 신으로 꼽힌다. 불사는 스승이지만 무속의례에서는 할머니로 많이 등장한다. 제석과 불사는 무속 판테온에서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다.²⁵⁾ 이렇듯 무속 신의 세계에서는 불교 신들이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른바 불교를 존중히 여기는 무속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불교의 신들을 수용하면서 무속의 영적인 세계의 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고 무속의 사고 체계를 향상시키는 기능도 있다. 사후세계와 관련된 불교 신인 지장보살(地藏菩薩)과 시왕(十王)도 무속에 수용되어 더욱 복잡한 사상체계를 이룬 것이다. 무속은 불교의 사후사상을 받아들이고 소화해 내면서 자신을 보다 더 세련된 사상과 의례로 발달시켰다. 이를 통해 무속은 낙오함이 없이 사람들에게 참신한 사고를 제공하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2) 혼합현상의 두 번째 이유는 불교의 저승 관념을 들 수 있다. 무속이 불교의 저승사상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저승에 대한 관념이

24) Hyun-key Kim-Hogarth, *Syncretism of Buddhism and Shamanism in Korea*; Korean Studies Series No. 21, Seoul: Jimoondang Publishing Company, 2002.

25) 위의 책, 238-239쪽.

변화되었다. 무속의례나 무가에서는 내세를 '극락(極樂)'으로 상징하고 극락은 서방정토(西方淨土)인 서역국에 있다고 표현한다. 이는 곧 불교에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의 방향(西天西域)과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무속에서 말하는 지옥도 불교의 지옥 관념을 차용하여 무속 본래의 순수한 저승의 형태는 찾기가 어렵다. 또한 무당이 굿을 하는 중에 불경과 염불이 직접 노래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상식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더욱 정교하고 세련되게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예는 무당이 불교의 위세를 차용하기 위해 불교식으로 무속의 표층을 바꾸어 나가는 무속의 불교적 변용현상으로 볼 수 있다.

3) 셋째로 무속이 세력의 차이 때문에 불교를 모방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불교가 국교로 성장한 이유는 건국이 되는 시점부터 태조가 훈요십조(訓要十條)를 통해 불교를 국교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유교, 도교, 그리고 고유종교 등 다양한 종교전통들이 공존하게 했다.²⁶⁾

이런 상황에서 무속은 불교를 본받아 종교의 공식적 위상을 향상시키고 인정받으려 했을 것이다. 팔관회가 그 예인데, 이는 불교의 위상을 얼굴삼아서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무속의 내용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벽이단(闕異端)의 논리로 인해 불교는 무속과 더불어 요사스러운 미신이라고 탄압을 받으면서 민간 종교로 전락한 채 이어져 내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종교로서 어느 정도 공식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왕실이 몇 사찰을 원찰로 삼아 불교를 지지하는 전통이 조선시대에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불교는 무속에 비교하면 더욱 인정을 받았으며 무속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생각된다.

현대 사회에서 불교는 비교적 강한 세력을 지닌 공식적 종교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에 비해 무속은 아직까지도 민간신앙의 단계를 벗

26) 훈요십조에는 불교를 국교로 지정하고 유교의 사상을 중요시하며 한국 고유 문화전통을 높이 강조하고 있다.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어나지 못한 비공식적인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무속이 불교를 본받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혼합현상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무속에서 불교의 요소를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무당을 보살이라고 부르거나 불교의 신을 무당의 신단에서 모시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불교는 자신의 공식적인 위상 때문에 불교의 무속적 요소들을 부인하려고 한다. 무당들은 자신들이 불교를 수용하고 있음을 거리낌 없이 나타내는 반면 불교 승려는 소극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양자간의 위상 차이를 반영한다.

무속은 외래 종교인 불교의 신앙의 대상과 체계를 차용하여 민간의 종교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보다 세련된 체계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도를 염두에 둘 때 무속의 불교 수용이라는 종교적인 혼합현상이 잘 설명된다. 해석학적 차원에서 보면 개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종교를 차용 혹은 수용하는 이유는 혼합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V. 결 론

혼합현상의 전제 조건을 말하자면, 종교 간에 긴 시간 동안의 상호 영향 그리고 교환의 이익과 목적이 있어야 하고 또한 용이하게 양립할 수 있는 토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혼합현상은 이러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일어나는 복합적인 과정이며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순조로운 혼합현상은 특정한 구조의 유사성이라는 단일한 원인에만 있기보다는 대화의 역사와 수용하는 집단 혹은 개인들에게 능동적인 수용의 의도도 있어야 한다.

관계의 기간을 말하면, 불교와 무속의 대화는 1700년을 거쳐서 지속되어 왔다. 그에 비해 기독교는 18세기에 한반도로 전파되어 200여 년의 기간 동안 무속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은 아니다. 그 결과로 무속과 기독교 사이에는 뚜렷한 혼합 현상은 있지 않다.²⁷⁾ 시간적 요인 이외의 다른 원인도 고려해야 한다. 무속과 기독교 사이에 혼합이 없는 현상은 기독교의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에서도 기인한다. 결과로 두 종교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아 혼합에 큰 장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교는 불교보다 무속과 더 긴 관계가 있었지만 유교는 대부분 통치이념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대중 종교인 무속과 민간신앙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무속을 민간신앙으로 요사스럽게 여기고 배척하였다. 게다가 무속의 입장에서 볼 때 유교는 내세관이 미약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가치가 없었다. 무속이 그런 유교를 자신의 일부로 흡수할 여지는 별로 없었다.

불교가 기독교 또는 유교와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 불교는 무속과 긴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긴 시간을 서로 우호적으로 지내왔다. 예컨대 조선시대 때는 불교도 무속과 같이 요사스러운 종교로 배척당했다. 그 때에 불교는 민간신앙으로 많이 변하며 무속과 가장 밀접한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 외에 수용의 이유를 말한다면 불교는 세계종교로서 무속에게 색다른 사상을 줄 수 있는 위치였다. 불교 수용을 통해서 무속은 보다 더 세련된 사고체계를 발달시켰다.

더 나아가서 불교의 시왕신앙을 예로 들자면 불교와 무속의 사후세계관에는 구조의 유사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양립 가능한 토대가 있었다. 불교와 무속 모두의 관용적인 경향이 혼합현상을 가능하게 해 준 기반 전제 혹은 토대인 것처럼 보인다. 반대의 예가 유교의 정통주의일 것이다. 불교는 유교와 달리 정통에 엄격하게 집착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상을 쉽게 포용해왔다. 해석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쉽게 관용성은 종교가 타 지역에서 쉽게 정착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향 때문에 불교는 타 지역에 정착하기가 용이하다. 이 과정에서 무속 나름의 해석이 가미되어 보다 순조롭게 두 종교가 혼합될 수 있었으며 나름대로 자신의 특성도 유지되었다. 무속이 불교의 사후세계관을 수용하였지만 무속의 사후세계관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고 무속의 저승 구조가 유지 되었다. 또 무속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동기, 즉 현세 사람들의 안심과 행복의 추구라는 목적도 유

27) 기독교에서 무속적 요소의 수용을 다룬 논의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홍현호, 『한국개신교 목회자 성격과 무속전통 : 전래초기 1885-1945년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2005.

지되었다.

결과적으로 불교에서 민간적인 혹은 대중적인 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불교의 이런 측면이 다른 사상전통으로 하여금 역으로 쉽게 불교를 수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사실은 불교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도교와 한국에서는 무속과 그리고 일본에서는 신도와 불교가 혼합했던 사실은 곧 불교의 대중성을 말해준다. 이른바 불교의 기복적이고 현실적인 면도 불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一志社, 2004.
- 김태곤, 『巫俗과 靈의 세계』, 한울, 1993.
- 김태곤, 「부속와 불교와 습합」, 『한국민속학』 19, 1986.
- 이기선, 『지옥도』, 대원사, 1993.
- 이재운 외, 『한국인의 사후세계관』, 전주대학교출판부, 2001.
- 편무영, 『한국불교민속론』, 민속원, 1998.
- 홍윤식 외, 『불교민속학의 세계』, 집문당, 1996.
- 한보광, 「한국불교에 있어서 지장의례의 역할」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장신앙의 재조명』, 서울: 월류산 영명사, 1991.
- Choi Jong Seong, Syncretism of Buddhism in Korea: Book Review,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8 No. 1 March 2005.
- James Huntley Grayson, "The Accommodation of Korean Folk Religion to the Religious Forms of Buddhism: An Example of Reverse Syncretism", *Asian Folklore Studies*, Volume 51, 1992.
- Hyun-key Kim-Hogarth, *Syncretism of Buddhism and Shamanism in Korea: Korean Studies Series No. 21*, Seoul: Jimoondang Publishing Company, 2002.
- Tambiah, S. J., *Buddhism and the Spirit Cults in North-east Thail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Abstract >

Syncretism between Popular Buddhism and Musok in Korea.

Kim, Sung-Eun

In the study of Korea Buddhism, its syncretic nature is an unique characteristic that has been largely ignored. Yet it is a significant aspect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Buddhism in Korea. Starting from the time Buddhism set its foot on the Korean peninsula 1700 years ago it could not help but adopt Korean Musok or shamanistic elements in order to become "Koreanized" and become adapted to a foreign land. Buddhism among foreign religions and world views such as Christianity and Confucianism, is most highly syncretised with Musok, the autochthonous religion of Korea.

This article argues that Christianity's relatively short history of 200 years and its attitude of exclusivity to one truth has not allowed it to be more syncretised with Musok. Confucianism on the other hand had a longer history than Buddhism on the peninsula but its emphasis on orthodoxy has rejected Musok as heresy. Lastly, Buddhism not only has a long history but its teachings do not highly emphasis orthodoxy allowing it to be open to various traditions of belief. It is this nature that has allowed it to easily adopt elements of autochthonous religions and oppositely be itself be easily accepted into the foreign country. That is the rason why

Buddhism has spread so successfully in Asia; in Korea, Buddhism has become syncretised with Musok, in Japan with Shintoism, and in China with Taoism.